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내부통제 제도개선 세미나」

祝 辭

2022. 12. 20. (화) 10:00
금융투자협회 볼스홀(3층)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 용 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재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는
「바람직한 내부통제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금융권의 새롭고 힘찬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금융권 여러 참석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금융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실물경제 대비 금융부문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은 1975년 2.5배에서
지난해 11배를 초과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 명목 GNI 대비 총금융자산 규모

커진 것은 금융시장의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핀테크·빅테크 등 전통적인 금융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플레이어들의 출현으로 인해 금융의 폭도 넓어졌고,
금융시장 기법이 고도화되는 등 금융의 깊이도 깊어졌으며
금융권 내 환경·기술변화와 자금흐름의 속도도 더욱 빨라져
다차원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생활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더 이상 외부적 통제·규율만으로는,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건전성, 소비자보호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융권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회사가 스스로 잠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실제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능력을 갖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업계는 지난 10여 년 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쉼 없이 해왔습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갖춰진 절차와 기준들이
금융권에 대한 실질적 신뢰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또다른 문제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내부통제절차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해왔습니다.

TF에서는 현행 규율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와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는 자가 불일치

그동안 훼손된 신뢰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미흡한 내부통제를 반성하고,
내실있는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과 조직문화 전반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이러한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주는 등
실제적인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부통제 TF는 지난 11.30일
중간 논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업계 의견수렴 후 조만간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일 세미나도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얻는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생각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생각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한국 금융권이 한 발자국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